

# 김제 금구초·중 학교복합시설 조성

### 교육부 올해 2차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비 포함 총사업비 120억원 확보

### 실내체육관·북카페 등 지역주민 이용 가능 공간 조성... 신청 우수사례로

‘김제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이하 김제 학교복합시설)’이 2025년 2차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120억원(국비 60억 원 포함)을 확보했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금구초·중학교 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2,361.5㎡ 규모로 건립되는 김제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실내체육관, 자기주도학습공간, 늘봄센터, 시청각실,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구초에 별도의 늘봄센터를 마련,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용 공간이 확보됐다.

또한 초·중 통합학교임에도 단일 체육관을 함께 사용해 체육 수업 공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별도의 실내 체육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더불어, 통합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 4층에 조성되는 실내체육관은 교육과정 외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도 상시 개방된다.

이와 함께 김제 학교복합시설은 이

번 공모 신청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한편 이번 선정은 △2023년 부안 △2024년 순창·정읍·남원 △2025년 1차 입찰에 이은 6번째로, 학교복합시설 누적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김제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 학교 공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대·제주대 홍보대사 교류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학생 홍보대사 교류행사를 가졌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제주대 홍보실 직원과 학생 홍보대사들이 지난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대를 방문해 대외 행사 지원, 입시홍보, 내방객 캠퍼스투어, 온라인 홍보, 각종 영상물 촬영 등 다양한 활동 공유하며 두 대학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대학의 홍보대사들이 공동으로 영상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해당 영상은 양 대학 홍보대사 학생들의 단복 및 학교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SNS 채널에도 게시돼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교류행사에는 전북대 이정환 홍보실장과 제주대 이태운 홍보팀장을 비롯해 양교 학생 홍보대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홍보 활동 경험을 나누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추진과 상호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며 거점국립대의 위상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가 지난 4~5일 전북대에서 학생 홍보대사 교류행사를 가졌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전북교육청 ‘교교 입학전형 포털 고도화’

### 중·고교 업무기능 통합, 데이터 기반 전형 정보 시각화 등 현장 교사 의견 수렴해 시스템 개편

고등학교 입학전형 포털(이하 고입 전형포털)이 한층 고도화 될 전망이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양해진 고입 전형 업무 지원을 위해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착수,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맞춰 단계별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2년 구축해 13년간 운영해 온 고입전형포털은 고입 전형이 다양화되고, 정보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업무기능 재정비가 필요할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현장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업무 경감을 위한 사용 편의성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했다.

새로워진 기능으로는 △이월화된 중학교 업무 기능과 고등학교 업무 기능

통합 △학생·학부모가 직접 원서 작성·제출 기능 △자기주도학습전형 정보 제공 △산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교의 입학전형 △평준화고교 선배정대상자 신청·심사·결과 조회 기능 △데이터 기반 시각화를 통한 원서접수 현황 및 통계 자료 제공 △교원·학생·학부모 알림서비스(고입전형 안내/원서접수/합격통보/배정 안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기능 등이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업무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존에 발생했던 원서제출의 오류를 해결하고, 노후화 된 시스템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래교육연구과의 협업을 통해 4세대 나이스 기반 클라우드 환

경에서 인프라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하드웨어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클라우드 운영 환경에서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신규 구축된 고입전형포털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1일과 26~27일 중학교 진학부장과 고등학교 입학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이 중등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다양화된 입학전형을 시스템화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입시전형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교원 업무 경감은 물론, 고입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지도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 직원 승진 인사발령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6일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직원 승진 인사발령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총무처장을 비롯한 각 부서 팀장 등이 참석해 승진 대상자들을 축하했다.

승진임용 대상자로는 도서관 나시내(사서주사), 총무처 양희정(대학회계직 7급), 학생지원처 정희중(대학회계직 8급) 등 3명이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승진은 각자의 노력에 대한 인정이자 큰 발전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우리 대학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육공무직원 인문공감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8일 도립미술관에서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인문공감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원 540여 명이 참여하는 이 연수는 교육공무직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진 및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 교육공무직원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자존감을 높여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특히 조직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정경력 교육공무직원을 우선 선발했다.

주요 내용은 △바람직한 인문정신 함양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 △명화를 활용한 심리 분석 및 상담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심리학 이론 및 사례 소개 등이다. /장은성 기자

##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국가기술자격과정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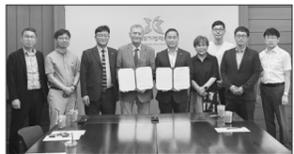
### 전주기전대-전건협 전북,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은 6일 교내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본교 글로벌 산업기술과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국가기술자격 ‘콘크리트 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선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수한 글로벌 건설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양성되는 유학생들은 국내 건설산업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기술 분야 정보 교류 △산학 연계 수익사업 발굴 △인적·물적 자원 상호 협력 △기타 공동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천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국가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



고, 글로벌 건설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형 교육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계와 연계해 더 많은 국제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근홍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의 실무 네트워크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이 결합해 국내의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우수 외국인 기술인력 배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기전대학은 2026년부터 글로벌산업기술과를 중심으로 베트남 유학생 대상 ‘콘크리트기능사’ 과정평가형 교육훈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 전북교육청, 14일까지

### 하계 교직원 안전직무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하계 교직원 안전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는 도내 유·초·중·고교 교직원 130여명이 참여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한다. 특히 학기 중 바쁜 업무와 수업 준비로 연수참여가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참여도를 높였다.

먼저 오프라인 연수는 6일 익산안전체험교육장에서 생활안전, 재난대응, 응급처치 등 체험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어 8일과 11~14일까지는 줌을 활용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학교안전지원시스템 활용법 △학교안전사고 통계 및 주요 사례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안전교육 콘텐츠 등이다.

장경단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안전은 교육의 기본이고 교사의 대응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교직원의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올 대학혁신지원 사업 성과평가 ‘S등급’ 획득

### 전주대, 3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학생중심 교육혁신 선도 대학 재인증 안정적 재정기반 속 교육혁신 가속화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교육부의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인 S등급(교육혁신 성과 S, 자체 성과관리 A)을 획득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성과는 전주대가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번 평가는 총 138개 일반재정 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학의 교육혁신 성과와 자체 성과관리 등 두 가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각 대학의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춰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체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었다. 전주대는 이번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교육혁신 성과 분야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는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유연한 학사구조,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그리고 학생 지원 및 관리체계의 성과와 계획을 종합 평가한다. 전주대는 자유전공학부 신설, 단과대학 통합모집 확대,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과 제한 폐지 및 다전공제도 개선, 융합전공 신설 등 학사제도의 혁신적 개편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

울러, 신입생 관리를 위한 지도교수·멘토링 체계와 ONE-STOP 학생 행정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 지원 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한 점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더불어, 지역 주력 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성화 분야 직무 중심 전공 체제 개편과 교육 혁신을 뒷받침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및 추진 체계의 일관성과 실행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혁신, 맞춤형 학생 성공 지원체계,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등 전 구성원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혁신과 질적 도약을 지속하고, 대학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고등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전주대학교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108억9,000만 원을 확보하며, 향후 3년간 안정적인 재정기반 위에서 교육 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 전북 지역 최대 사업비인 600억 원을 확보했고,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 선정되는 등 지역 중심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내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선발한다

### 전북교육청, 유치동 125명·중등 233명... 선전경쟁시험 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6일 누리집(www.je.go.kr)을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전경쟁시험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선발 예정 인원은 유·초등 분야 125명, 중등 분야 233명 등 총 358명이다. 이는 전년도 최종 선발 예정 인원 549명보다 191명이 감소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유치원 60명(장애 4명), 초등 58명(장애 5명), 특수유치원 6명(장애 1명), 특수초등 1명 등 총 125명이다. 전년도 177명보다 52명 줄었다. 중등 교사는 국어 20명, 영어 24명·

수학 17명·체육 12명·특수(중등) 11명·보건 11명·영양 10명·사서 3명·전문상담 9명 등 29개 과목 233명으로, 전년도 372명보다 139명이 감소했다.

보전 교사는 학교급에 따라 유치원(3명), 초등(6명), 중등(2명)으로 구분 선발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한 학교급 별로 배치된다.

한편, 사전 예고 인원은 정원 증감 요인과 퇴직 및 휴·복직 등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 선발 인원은 향후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초등 및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전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시 확정된다.

/장은성기자



우석대학교가 지난 4~6일 '학점인정 학교 밖 교육'을 운영한 가운데 박한호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영화 속 범죄 프로파일링 지문 감식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 우석대, 일반계고 학생 '여름방학 학교 밖 교육'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지난 4~6일 '학점인정 학교 밖 교육(여름방학 강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일반계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알기 쉬운 인공지능 활용법(정보보안학과 백유진 교수)'과 '영화 속 범죄 프로파일링(경찰행정학과 박한호 교수)' 등 두 개 과정

으로 진행, 각 강좌당 2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참여 학생들은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배우고, 직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실질적인 이해를 높였다. 또한 범죄 프로파일링 강좌에서는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지문 감식과 혈흔 감식 등 과학 수사 실습을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장은성 기자